광주환경공단 직원 복지 행정 예산 낭비

예산 수억원 들여 구입 콘도회원권 이용률 50% 이하

문태환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환경공단이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수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을 사놓고도 정작 이용률은 저조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소속 문태환(광산 2·사진) 시의원이 10일 광주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휴양시설 회원권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3월 말 노사 협의를 통해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대명리조트 콘도 1구좌를 4333만원에 구입했다.

광주환경공단은 대명리조트 콘도 1구좌 외에도 기존 대명리조트 3구좌(20평형 1구좌·30평형 2구좌), 일성리조트 6구좌(20평형 4구좌, 30평형 2구좌), 엘도라도리조트 1구좌(28평형) 등 총 10구좌의 휴양시설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회원권은 한 구좌당 30박 이용이 가능한데도, 정작 이용률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3년~올해) 한 구좌당 이용률 현황을 보면 ▲일성리조트는 3.1박(2013년 3박·지난해 4박·올해 2.3박) ▲대명리조트 17.3박(〃 18박·15박·19박) ▲엘도라도리조트 20.3박(〃 22박·21박·18박) 등이다.

직급별 이용현황에서도 최근 3년간 무기계약직은 고작 3일만 이용했으며 ▲9급 직원은 11일 ▲8급 20일 이용했다.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10%가 넘는 37명에 이른다. 5급 이상은 전체 임직원 281명의 40% 남짓한 123여명에 지나지 않지만 이용일수는 전체 266일의 62%에 달하는 165일이나 됐다.

문태환 시의원은 "광주환경공단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이란 명목으로 수천만원대 회원권은 구입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작업환경,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보호장비 구입은 복리후생비로 사용하는 모순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용률이 낮은 회원권은 팔고 보호장비 구입비는 별도의 안전장비구입 예산을 편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환경공단 직원 평균 연봉은 4500여만원으로 전국 80여개 공단 중 최상위급이지만, 경영평가등급은 최근 4년간 중하위인 다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나등급을 받았다. 최근 5년간 매년 1억원 안팎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광주환경공단은 "회원권 구입은 소모성 자산이 아니며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5급 이상 직원은 하위직에 비해 기혼자가 많아 당연히 이용률이 높을 수 밖에 없고 보호장비 구입도 복리후생비로 편성하도록 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비정규직 보호' '새꿈도시 조성'

100대 좋은 조례 선정

강성휘 도의원

박철홍 도의원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목포1)이 발의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박철홍 의원(담양1)이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하는 '좋은 조례 경진 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지난 9~10일 이틀간 진행된 '2015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에서 좋은 조례 경연대회 발표자로 나선 강성휘 의원은 이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차질 없는 추진과 청소년 알바 등 근로청소년 보호사업 강화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추진 등 비정규직의 권리보호 및 지원을 위해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철홍 의원은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귀농·귀촌 인구 증가 등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362건의 조례를 심사위원 평가 70%와 온라인 공감투표 30%을 반영해 100대 조례를 선정했다. 이들 100대 조례 중 9일부터 2일간 100대 조례 판넬 전시 및 조례 주요 내용 발표, 현장 투표 등을 통해 최우수 10대 조례를 선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선진교통문화 정착합시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350여 명을 대상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운수종사자 역할'에 대해 특강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 제공〉

"DJ센터, 봄꽃박람회 무리하게 진행 수억 낭비"

심철의 광주시의원 밝혀

관람객 줄고 수익 감소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관 전시회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바람에 수억 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심철의(서구 1) 시의원은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봄꽃박람회 사업비로 4억9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관람객은 오히려 15% 줄고 수익도 전년대비 9000만 원 감소했다"면서"이는 봄꽃박람회 주관전시 담당부서가 관련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탓"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김대중컨벤션센터 측은 해당 부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매년 수입이 감소하는 상황인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이번 봄꽃박람회는 광주화훼농가의 발전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바뀌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산서류를 보면 흙·나무·벽돌 등 봄꽃박람회 진행에 필요한 각종 공사물품을 구입하는데, 전남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했다"며 "화훼농가 수출상담회 참여업체도 11개 중 3개만 광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당부서에서 봄꽃박람회 정산과 관련,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시청에 제출한 정산내역과 시정심의 참고자료 내용이 각기 다르다"면서 "이번 봄꽃박람회를 부실하게 진행한 책임을 물어 해당 부서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방 정가

"광주시립미술관 구입 미술품 회화 편중"

임택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시립미술관이 최근 사들인 미술품이 작가·분야·시대별로 편중현상을 보인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임택 광주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시립미술관의 최근 3년간 구입한 미술품은 모두 347점이었다.

분야별로는 한국화 54점, 회화 195점, 사진 36점, 판화 27점, 조각 24점 등으로 서예, 디자인, 건축분야는 없었다. 창작 연도별로는 2010년 이후가 161점, 2000년 이후 133점이었으며 1970년대 이전 작품은 18점에 그쳤다.

일부 작가의 작품으로 구입 대상이 집중되기도 했으며 시민이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작품도 제한적이라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순수 소장 작품 1천6%점 중 201점, 하정웅 기증작품 2천523점 중 230점만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임택 시의원은 "학문적 연구, 시민과의 공유가 구입 목적인데도 특정분야에 치중됐고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록된 작품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시민이 다양한 분야와 작가의 작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육재정 운영성과 최하위"

유정심 광주시의원 주장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0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 운영 성과평가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위권인 15위를 차지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주는 63.20점으로 75.12점을 획득한 울산교육청에 비해 10점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 평균 67.8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 반영 실적은 전국 평균이 1.52점인데 반해 광주는 1.33점을 받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는 5점 만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이 4.25점인데 반해 광주는 3.67점으로 특·광역시 중 세종에 이어 7위에 머물렀다.

유 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반영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노력도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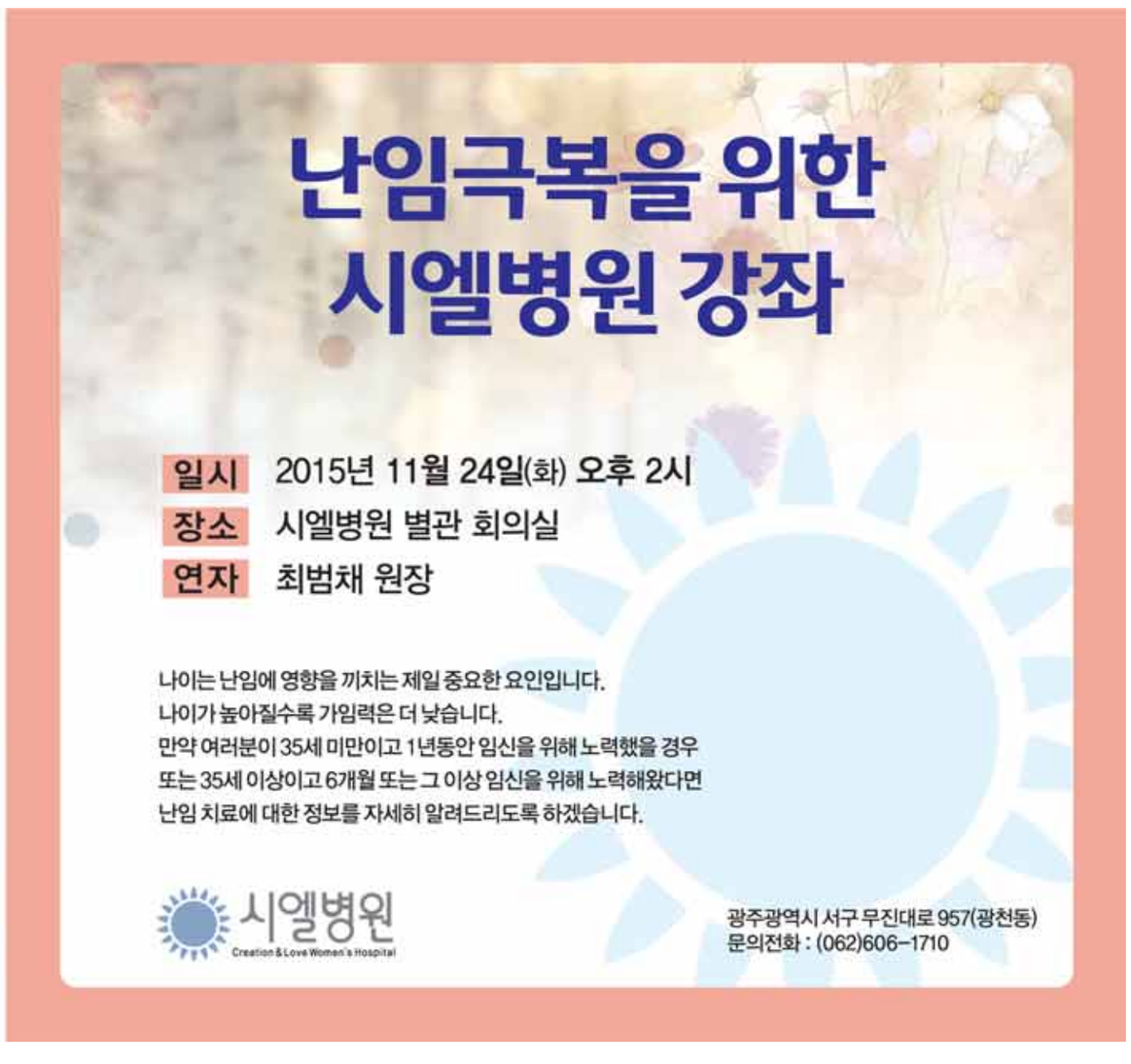
"가뭄 심각 … '물 100년 대계' 시급"

송형곤 전남도의원 촉구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송형곤 의원(고흥1)은 5분 발언을 통해 가뭄을 비롯한 물 문제에 대한 '100년 대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9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기후변화 현상으로 겨울가뭄과 여름철 마른장마가 연중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섬 주민들도 매년 제한급수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물의 재이용에 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현재 도내 주요 댐의 저수율도 20~30%에 그쳐, 내년 장마철까지 가뭄이 계속될 우려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이같은 가뭄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100년 대계'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제한급수에 들어간 신안의 일부 섬을 사례로 들며 "지역민들의 젖줄인 주암댐과 장흥댐의 수위가 지난해에 비해 현격히 줄었고, 기상청에서 내년 우수기까지 큰 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